

## A Study of Organization of University Library of Korea

##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조직의 일 연구

金 明 玉

승의여전도서관학과장사

編輯者註：本稿는 1975年度 9月 延世大學校 大學院 圖書館  
學科 碩士學位論文의 要約이다.

## I. 서 론

플렉스너(Abraham Flexner)는 대학이란 지식을 추구하며,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과거의 업적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인간을 참으로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도록 양성시키는 목적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라고<sup>1)</sup> 현대적 대학의 이념을 밝히고 있다. 대학도서관은 이러한 대학의 목적을 이루고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키기 위한 교육지원시설이며, 대학사회의 가장 중요한 지적자료원으로서 그 중심부를 차지하고, 교육의 한 동태적 기구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은 해방후 급속도로 발전한 것은 사실이나 자료의 증가, 대학인구의 증가, 고등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정책의 변화 등으로 종래의 대학도서관 조직 시설 운영방침만으로는 도저히 현대 대학도서관의 임무를 다할 수 없게 되었다.

드러커(Peter F. Drucker)에 의하면 좋은 조직구조는 필수적인 기초이며 그것없이 경영의 모든 다른 분야에서 최선의 수행도 효과없고 헛된 일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sup>2)</sup> 그런데 도서관 발전국가로서의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초기의 전통적인 집권적조직(Traditional Centralized Organization)에서 분관조직(Departmental Organization), 주제부문별조직(Subject Divisional Organization)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關散組織(Interspersed Organization)으로 발전하게 되었다<sup>3)</sup> 여

기에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조직을 비교하여 보면 두번째의 분관조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교육에 있어서 중추적인 실장기관으로서의 대학도서관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고등교육에 따라서, 그 본래의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 할 수 있도록 현재 채택하고 있는 대학도서관 조직의 현황을 분석 검토하여 당면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개선책을 발견해내어 현재는 물론 예상되는 대학의 성장에 대비하는 이상적인 대학도서관조직을 설정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도서관계 1973년에 의거하여 서울시내 종합대학교중 학생수 5,000명이상인 대학도서관 및 연구대상이 될 만한 조직을 가진 11개교를 선정하였으며, 통계의 기준일자는 1974년 9월 30일로 하였다.

## II. 대학도서관의 현황과 개선점

## 1. 대학도서관 규정

대학도서관 규정은 대학도서관이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발휘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의 목적, 조직 및 업무등 경영전반에 걸친 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일관성있게 유지하여 대학도서관 경영의 혼란을 피하게 하며 예산의 확보 및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일률성있는 직원 배치 및 그 책임과 권한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그러한 경영의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성문화된 문서이다.

11개 대학도서관중 공식화된 규정이 없는 곳은 서강대학교이며, 고려대학교는 장서이용과 도서변상 규정만이 있다. 이와같이 도서관규정이 없거나 미비하면 대학도서관 정책의 일관성을 결할 우려가 있고, 각 직원의 책임과 권한이 불명확하여지고, 제반 경영에 관한 법적인 보장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영의 원활을 기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의 제정이 요

1) Clark Kerr, 大學의 使命, 李鐵柱 譯, (서울:乙酉文化社, 1974), p. 24

2) Peter F. Drucker, The Practice of Management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4), p. 226

3) Arthur A. McAnally, "Organization of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y", *Library Trends*, v. 1 no. 1 (1952. 7) pp. 20-36

청된다.

## 2. 대학도서관 조직의 현황

### 가. 조직도

직제의 확립은 구체적으로 업무의 계획 및 수행, 예산의 확보와 집행, 적정하고 일률성있는 인사배치, 업무 및 책임한계의 명확등 질서있고 조정된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극히 중요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sup>4)</sup> 그러므로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그 행동 과정의 구조적인 측면을 담당하는 조직의 확립이 그 필수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다. 현재 11개 대학도서관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조직도 생략)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도서관 조직은 직제식 조직으로 많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소속 대학의 특수한 여건과 대학도서관의 규모에 따라다 양한 형태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나. 관장

관장은 대학도서관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장단기 정책을 수립하며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등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이다. 따라서 관장은 대학행정 및 대학도서관 경영에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적 능력과 아울러 폭 넓은 인간성, 지식 및 경영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인간 관계면에 있어서 깊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자로 보아야 한다.

관장의 자격에 있어서 마틴(Louis E. Martin)은 전문사서로 보아야 한다고 하며,<sup>5)</sup> 로저스(Rutherford D. Rogers)는 도서관 경험이나 학위는 부차적 문제이나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관장으로 선발되면 많은 장점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sup>6)</sup> 따라서 관장은 비전문직 보다는 적어도 도서관학 석사학위 이상이나 타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갖고 1년이상 도서관학교육을 받은 자로 고등교육에 관심을 가진 광범위하고 다양한 자질의 소유자가 선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현재 11개 대학도서관중 이화여자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도서관학에 대한 수확, 경험을 갖지 않은 교수를 겸임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도서관의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도서관의 원활한 운

영을 기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관장 전공분야의 수서나 그 방면의 봉사에만 치우칠 수 있으며, 겸임인 관제로 도서관 운영에 대한 노력과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도서관학과가 있는 4개교중 3개교에서 도서관학과 교수가 관장으로 선발된 예가 없다.

그러므로 도서관직에 조예가 깊은 관장의 <선발과 그 전임제가 요청되며, 도서관학과가 있는 곳은 도서관학과 교수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나아가 자격있는 전문사서에게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주는 것이 전문사서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주며 결과적으로 대학도서관 활동을 증진시킬 것이다.

그리고 관장의 임기는, 현재와 같이 타 분야의 교수를 겸임으로 선발하는 상황아래서는 직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4년 내지 5년의 임기나 2년의 임기에 중임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 다. 부관장

부관장은 관장과 각 부서 책임자와의 중간에 위치한 관장밑의 제일 직원으로서, 위로는 관장을 보좌하고 아래로는 각부서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책임을 갖는다. 따라서 부관장은 관장의 제일 조연자로서 전반적인 대학도서관 업무활동에 제일 조연자로서 전반적인 대학도서관 업무활동에 책임을 지므로 현재와 같이 겸임의 교수를 관장으로 선발하는 상황아래서는 전임제의 전문사서를 부관장에 선임하여 구체적인 실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현재 부관장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곳은 11개교중 5개교인데, 경희대학교는 비전문직원, 서강대학교는 전문사서, 이화여자대학교(사서장)는 도서관학과 교수가 겸임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건국대학교, 중앙대학교는 공석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비관장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건국대학교와 중앙대학교도 성문화되어 있지만, 선발되는 절차 및 자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선발절차를 알수 없고 비전문직원이 부관장에 선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보완이 요청되며, 또한 양대학교는 공석으로 남아 있는데 능률적으로 대학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능력있는 전문직원의 보임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경희대학교, 서강대학교는 부관장이 있지만 규정에 성문화되어 있지 않아 교내외를 막론하고 그 법적근거를 찾을 수 없고, 책임과 권한의 한계가 모호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규정의 제정이 요청된다.

### 라. 내부조직

현재 11개대학교는 네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4) 李喆珪, "圖書館의 職制確立과 人事配置—特히 大學圖書館을 中心으로" [延世大學校]圖書館學會誌, 3號(1967)p.67  
5) 李萬甲, "마틴報告書에 對한 意見書", [서울大學校]도서관보, 9卷 1號(1972. 12) p. 5  
6) Rutherford D. Rogers, *University Library Administration*, (New York: H.W. Wilson, 1971), p. 26

는 관장 밑에 사서과 1개의 과만을 두고 그 밑에 작업별로 여러 실을 두는 유형(홍익대학교)이고, 둘째는 관장 밑에 2개의 과를 두고 여러 계 및 실을 두어 계층을 이루고 있고 통솔의 범위를 적절히 이용하여 조직된 유형(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이고, 셋째는 관장 밑에 부관장을 두고 그 밑에 사서과만을 두며 그 밑에 여러 실을 두는 유형(서강대학교)이며, 넷째는 관장 밑에 부관장(혹은 사서장)을 두고 그 밑에 2~3개 과를 두어, 둘째 유형과 같이 다수의 계를 두는 유형(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이 있다.

첫째 유형은 소규모 조직인데, 비록 학생수가 적고 소장 장서가 적은 규모라 할지라도 작업의 종류에 따라 5실로 나누어진 전 직원을 사서주임 한사람이 직접 지휘 감독한다는 것은 통솔의 범위, 전문화의 원칙도 합당하지 못하며 대학도서관 업무의 특수한 성격을 견장하기 어려운 조직이므로 열람과의 설치가 시급하다.

둘째 유형은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는 사서과, 열람과로 분장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사무업무가 사서과에 포함되어 있어 전문사서가 사무업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가 있어 비경제적일 우려도 있고, 전문화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기구가 확대됨에 따라 사무업무도 하나의 계나 과로 독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연세대학교는 관리과, 정리과로 구성되어 대학도서관의 업무를 측면에서 보좌하는 관리과는 하나의 과로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제일선에서 직접적으로 봉사활동을 제공하는 직접봉사업무는 하나의 과로 승격되지 못했는데, 대학도서관 조직이 전도된 느낌이다. 그리고 정리과장이 정리주임 대출주임을 겸임하고 있는 것도 정리과장의 업무량이 많아 능률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우려가 있고, 전문화, 통솔의 범위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권한과 책임의 한계도 모호하게 되므로 그 시정이 요청된다.

셋째 유형에서 서강대학교는 겸임의 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관장을 보임시킨 것은 바람직하나 첫째 유형에서 고찰된 바와 같이 1과만이 설치된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넷째 유형 중 건국대학교는 부관장 밑에 총무과, 사서과, 열람과로 분할되어 있어 현재의 종합대학교의 도서관조직으로는 가장 바람직하나 공식인 부장관의 보임이 시급하며, 총무과에서 수행되는 사서업무는 수서업무의 특수성, 전문성, 그리고 장서 구성에 있어서 중요성을 고려하여 정리과의 한 계로 소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서과장이 3과장직을 겸임하고 있는데, 과

다한 업무량은 효과적으로 그 업무들을 수행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 시정이 요청된다 할 수 있다.

경희대학교는 부관장 밑에 사서과 열람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무계는 기구가 확대됨에 따라 독립된 계나 과로 승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서과 소속인 복사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열람과에 소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화여자대학교는 관장, 사서장 밑에 3과로 구성되어 있고, 참고실은 인문자연과학과 사회과학분야로 나누어졌는데 건물, 장서량이 허용된다면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부문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학문연구상 바람직할 것이며, 수서계에서 행하는 사무업무도 둘째 유형에서 고찰된 바와 같이 기구가 확장됨에 따라 독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직원의 사기 양상을 위하여 주임제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중앙대학교는 부관장 밑에 3과가 있으며, 서무계가 독립되어 있는데, 증가되는 도서관 업무량, 예산규모, 사무업무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과로 확대시키는 것이 대규모 도서관에서 바람직하며, 시청각 자료와 연구자료의 필립화를 위한 특수자료과가 분장되어 있는 것은 대학교내의 모든 종류의 연구자료를 도서관이 관장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 마. 분관조직

11개 대학도서관 중 분관이 설치된 곳은 9개관이며 분관의 총수는 34개관이다.

현재 9개교에 설치된 분관현황은 표1과 같다.

분관수	대 학 교 명
1	동국대학교
2	경희대학교
3	성균관대학교 <sup>7)</sup> 중앙대학교
4	건국대학교 <sup>8)</sup> 한양대학교
5	고려대학교 <sup>9)</sup> 연세대학교
6	
7	이화여자대학교

이와같이 각 대학도서관에서 분관을 둔 이유는 ①봉사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②학교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③중앙도서관의 건물이 좁아서이기 때문이다.

7) 성균관대학교는 1975년 3월에 1개의 분관을 더 신설하였다.

8) 건국대학교는 1975년 3월에 4개의 단과대학 과제도서관을 더 신설하였다.

9) 고려대학교 UN기탁도서관 형태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분관에 관한 규정

9개 대학도서관중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가 성문화된 분관에 관한 조항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경희대학교는 분관설치만 규정하였으며 그 운영방침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데 그 보완이 요청되며 고려대학교는 도서관 이용안내에 분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이 이용안내만을 지시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이 요청되며 동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는 분관을 설치하고 있으면서도 관계 규정이 없으므로, 설치된 분관을 원활히 운영하고 분관의 법적인 보장을 하여 주며 장차 설치될 지도 모르는 분관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의 제정이 요청된다.

2) 분관의 운영형태

분관의 운영형태는 집중제, 부분집중제, 분산제가 있으며, 집중제내에는 집권적조직과 분권적조직이 있는데 각대학도서관은 하나의 형식으로 통일하여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혼합된 형식으로 운영한다.

가) 집중제

집중제란 관리운영의 권한이 중앙도서관에 집중되어 모든 권한을 보유하며 전체로서의 대학도서관을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34개의 분관중 12개의 분관이 집중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경영, 업무, 봉사활동이 일괄적일 수 있고 명령통일, 책임과 권한, 조정의 원칙이 확보되므로 바람직한 현상이라 본다.

① 집권적조직

집권적조직이란 의사결정권한과 업무권한이 중앙도서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12개의 집중제 형식의 분관중 10개의 분관이 집권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개관이 예산, 관리면에서는 중앙도서관의 직접적인 통솔아래 운영되지만, 정리업무는 분권화에 의하여 자체정리를 하는 부분 집권적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같은 분권화는 중앙도서관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정리도 중앙도서관의 지도를 받기 때문에 일괄적일 수 있으며, 중앙도서관에서 자료를 공급받는 것 보다 신속히 정리하여 봉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자료의 성격상 보다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보다 원활히 분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분적인

집권적조직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② 분권적조직

분권적조직이란 중앙도서관이 대학도서관 전체의 전반적 관리를 보유하며, 이러한 중앙도서관의 전반적 관리하에 기간적 집행활동에 관한 포괄적 권한이 분산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완전 분권적 조직으로 운영되는 곳이 없으며, 부분적 분권적 조직으로 운영되는 곳은 부분적인 집권적조직으로 운영되는 분관이 이에 해당된다.

나) 부분집중제

부분집중제란 도서관 관리운영의 권한이 중앙도서관과 소속단과대학, 연구소 또는 학과에 분산되어 양쪽의 지휘통솔을 받는 형태로서, 11개 대학교의 34개 분관중 5개 대학교에서 16개 분관이 부분집중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직원관리 및 운영을 소속단과대학장이 통솔, 운영한다면, 직원 자료의 중복을 피할 수 없고, 개관시간, 대출규정 등 봉사업무가 일괄적이지 못할 수 있으며, 타 대학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고, 직원관리면에서도 전체로서의 대학도서관 체제를 이탈할 우려가 있으며 도서관간의 경영조정이 어렵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분관을 설치할 때는 처음부터 관장의 통솔아래 운영되도록 구성하고, 대학도서관 기구를 확장시켜 부분집중제의 분관도 집권적조직이나 분권적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다) 분산제

분산제란 도서관 관리운영의 권한이 소속단과대학, 연구소 또는 학과에 집중되어 도서관 업무가 중앙도서관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5개 대학교의 6개 분관이 분산제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도서관의 중복을 가져오며, 직원, 정리, 봉사활동에 있어서 전체로서의 대학도서관 체제를 이탈할 우려가 있고, 의사소통, 협동, 조정등이 어렵게 될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점은 집중제의 분권적조직에 의하여 보완될 수 있으므로 대학내의 모든 도서관은 관장의 통솔아래 운영되는 집중제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바. 위원회 조직

현대 대학도서관에서는 업무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람이 많고, 도서관 활동에도 여러 협력, 조언, 원활한 의사소통, 제 업무의 연락 및 조정, 참여에 의한 사기 양양이 필요할 때가 많으며 교수들은 대학도서관의 자료, 건물, 봉사가 그들의 교수, 연구의 성공에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관장의 자문기관으로서 조직상 배려하게 된 것이다.

### 1) 도서관 위원회

11개교중 동위원회가 설치된 곳은 7개교인데 조직되지 않은 대학교는 도서관에서의 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위원의 선발은 그 수준을 고정하기 위하여 도서관 규정에 그 자격이 설정되어야 하며, 구성인원이 너무 적으면 광범위한 의견을 들을 수 없고, 너무 많으면 의견의 조정이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틈슨의 말처럼 12명 정도가 적당하나<sup>10)</sup> 학무처장, 기획조정실장이나 학생대표등 1명 내지 2명의 추가가 허용되어도 무방하다고 본다.

위원의 임기는 동위원회가 장단기 경영정책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고려하여 2년이 바람직하며, 회합수는 대학학기를 고려하여 년 2회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2) 자료선정 위원회

대학도서관은 한정된 예산, 시설로서 합리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동위원회를 두고 자료선정의 방침, 범위 등 구입업무의 수행에 따르는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더구나 정보폭발시대에 당면하여 광범위한 학문의 전 주제분야에 대하여 폭 넓고 수준 높게, 그리고 균형있는 자료를 선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위원회의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11개 대학도서관중 연세대학교(48명), 이화여자대학교(5명), 중앙대학교(50명), 홍익대학교(25명)가 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데, 위원수가 적으면 광범위한 의견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자료선정의 균형을 잃을 수 있으므로, 학과장급으로 구성된 홍익대학교나 도서관직원 및 각학과의 선발자로 구성된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의 경우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위원의 임기는 자료의 선정도 장기적인 계획아래 수행되어야 하므로 2년이 적당하며, 회합수도 대학학기를 고려하여 년 2회가 적당하다고 하겠다.

## III. 결 론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은 종래에는 대개 기능별 부서화에 의하여 과를 설치하였으나, 대학 규모의 성장과 변화에 따라서 분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참고열람실과 정기간행물실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곳, 도서를 전부 개가한 개산조직을 채택한 곳, 도서의 일부를 개가한 곳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형태의 대학도서관 조직중 학생수 5,000명이상, 장서수 30만권 규모의 대학도서관에 적합한 형태로서 두 조직을 채택하였다.

① 관장 밑에 정리부, 열람부를 두고, 총무과는 관장 직속의 독립적인 과로 분리하고, 열람부에는 대출실, 특수자료실, 일관참고열람실 및 3개의 주제부분별 열람실을 두어, 교과과정을 충분히 반영하는 20,000~30,000권의 도서를 개가하여 이용자들이 자유로히 자료에 접근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제전문사서는 도서관학 석사학위와 담당주제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였거나 담당주제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도서관학교육을 1년이상 받은 자로 보하게 하였다.

② 관장, 부관장 밑에 총무과, 정리과, 열람과, 특수자료과, 연구조사과등을 두며, 분관을 두는 조직이다. 분관을 설치할 때는 중앙도서관에서 모든 권한을 보유하는 집중제가 바람직하며, 분관은 대소를 막론하고 2명 이상의 직원을 배치하며, 그중 전문사서는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전문사서는 주제전문사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전문성을 높여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전문사서가 높은 학력과 지식의 배경을 갖추었을 때 대학당국은 전문사서들에게 교수들과 똑같은 교수직위를 부여하여 그들의 사기를 고취시켜야하며, 대학도서관도 전문사서들이 주제전문사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연구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을 하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양 조직에서는 대학도서관 업무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고려하고, 교수들의 대학도서관 업무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관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도서관위원회와 자료선정위원회를 채택하도록 하였다.

### 참 고 문 헌

- 1) 山田修, “大學圖書館規程について——組織規程と利用規程”圖書館雜誌, 63卷 4號(1969. 4), pp. 13—17
- 2) 草野正名, 圖書館學經營概論, 東京, 三省堂, 1973.
- 3) 澤本孝久, “わが國の大學圖書館組織の比較研究,”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o. 6 (1968. 7), pp. 179

10) James Thompson, *An Introduction to University Library Administration*, (London: Archon Books Co., 1970), p. 12

-204.

- 4) 河田政雄, "大學圖書館における 組織と運営—國立大學における中央館(本館)と分館との關係, 圖書館界 20卷3號 (1968. 9)
- 5) Bergen, Daniel Patrick, "University Library Organization as response to University Emphasis" *Library Quarterly* v. 32 no. 1 (1962. 1) pp. 19~38.
- 6) Bruno, J. Michael, "Decentralization in Academic Libraries", *Library Trends*, v. 19 no. 3 (1971. 1), pp. 311—16
- 7) Cooper, Marinne, "Organizational Pattern of Science

Library",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 29 no. 5 (1968. 9), pp. 357—63.

- 8) Kilpela, Raymond, "The University Committee"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 31, no. 2(1970. 7) pp. 227—31.
- 9) McAnally, Arthur A., "Organization of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y" *Library Trends*, v. 1 no. 1(1952 7), pp. 20—36.
- 10) Rogers, Rutherford D., "University Library Administration, Washington, The National Cash Register, 1970.

# 各 図 書 館 必 携 의 參 考 文 獻

## R. L. BOWKER COMPANY

BOOKS IN PRINT: Author Index: Title Index 1974. 4 vols  
 SUBJECT GUIDE to Books in Print 1974  
 Ulrich's INTERNATIONAL PERIODICALS DIRECTORY. 15/e  
 IRREGULAR SERIALS AND ANNUALS. 3/e

## MARQUIS WHO'S WHO, INC.

Who's Who in America, 38/e  
 Who's Who in the World, 1/e

## BURT FRANKLIN

Courant, M.	<b>Bibliographie Coreenne.</b> 3 vols	\$ 90.00
Howorth, H. H.	<b>History of the Mongols</b> from the 9th to the 19th Century 4 vols.	\$ 200.00
Kerner, R. J.	<b>Northeastern Asia</b> , a selected bibliography: contributions to the bibliography of the relations of China, Russia, and Japan,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 Manchuria, and eastern Siberia, in Oriental and European languages, 2 vols	\$ 57.50

■弊社에서는上記出版物의 韓國總販으로  
 註文을 拜受하고 있아오니 많이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株式會社 汎文社

서울鍾路區鍾路1街40 電話(72)5131~33

### 新 刊

朝鮮朝活字考—大型活字

(연세대학교 도서관학 총서 18집)

尹炳泰 著

3,900원

대학도서관 참고—정보업무에 있어서 주제전문가의

기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도서관학 총서 19집)

韓相完 著

1,500원

구입처: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전화 (33) 0131~0149 (교)

(33) 2194 (직)